

 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	2019. 6. 19.(수) 10:00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		
상하수도본부	보도자료 PRESS RELEASE	상수도부장	현 공 언	750-7800
		상수도생산관리과장	부 춘 성	750-7830
동영상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후속자료: 없음

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에 삼다수 지원

- 상하수도본부, 개발공사를 통해 삼다수 40톤 긴급 지원키로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5월 30일 인천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(적수)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,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제주개발공사를 통해 삼다수를 긴급 지원*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.

* 지원사항 : 삼다수 약 40톤(0.5리터 기준 8만병)

□ 인천시 급수사고는 취수장과 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시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계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관로의 수압변동으로 수도관 내부의 침전물이 탈락해 이물질이 발생하면서 붉은 수돗물(적수)이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○ 제주도의 경우에도 지역별 취수원 불균형으로 가뭄시 일부지역의 상수도 공급체계를 변경하거나, 각종 상수도 시설 점검·공사시 단수에 의한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예비 및 우회관로를 활용해 수계전환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.

○ 특히, 수계를 전환할 때에는 사전통수시험을 통해 탁도검사를 실시하고, 충분한 물 빼기 시행 및 수질 검사·확인 후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해 변경 관로를 통해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.

□ 상하수도본부는 이번 인천 사례를 계기로 상수도 분야에 유사 작업 수행시 수질검사 등 통수시험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.

○ 장기적으로는 우수율 제고사업과 병행해 노후관을 교체해 도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방침이다.